



## 농업기술자대회

生産技術部門 本賞受賞者

신 흥종 社長과 함께

# 이제 영세농가 위해 中, 大雛育成 사업에 注力할터

하바드 그룹의 선진양계지 시찰단의 일원으로 1개월간 미국, 구라파, 일본을 돌아 지난 24일 귀국하여 여독을 풀고 있던 고창양계 신흥종 사장에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농업 기술상의 최고상인 생산기술부문 본賞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한마디로 기쁘고 또 이 수상을 계기로 좀더 사명감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신흥종 사장을 찾아보았다.

6.25이후 30여 마리의 산란계로 시작한 양계업이 계속 확장되어 1967년에 본격적인 부화사업을 위해 고창양계센타를 건립한 신흥종사장은 현재 5만여평의 부지에 G.P.S. P.S 5만수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부화원이다.

특히 고창양계는 부화기, 종란소독기, 케이지, 자동급이, 급수기, 자동공기정화기 등 양계기계화에 첨단을 걸으며 고창양계 기구제작소를 설립하여 자체에서 제작한 기계기구를 판매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기계화에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신흥종사장은 영세한 양계농가에는 이해 타산을 초월하여 기술지도와 분양가격 등에 도움을 주었고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도입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여 일본, 대만, 홍콩 등지의 양계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개량시켜 실용화 시키는데 부단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1978년의 세계 가금학회 브라질 총회 참석, 미주시찰 등 전문과 지식을 넓히는데 주력하였던 앞선 양계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년도 부터는 지금과의 사업방향을 조금 달리하여 중대추 육성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시상식에서의 신흥중 사장)

신흥중사장은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의 양계는 주로 육추, 육성기의 사양관리 잘못에서 비롯되는 능력저하, 질병 문제 등으로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육추, 육성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시설이 미비하고 자금이 적어 이 격리사육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영세한 양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착안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평사용 자동급이 등 완전기계화, 자동화된 설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까닭에 가능한 거죠」 아울러 현재와 같이 계산물 가격에 비해 생산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여건에서는 양계인들이 생산비절감과 소비자에게로 가까이 가서 판매하는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급선무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기계화를 해야되는데 현재 대부분 양계 농가의 규모로는 기계화가 부적당 합니다. 또한 양계기구들이 아직도 외국산에 의존하는 율이 많아 가격이 비싼편이나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면 외제의 1/2가격이면 설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들이 한데 뭉쳐 소비자에게로 가능한한 가까이 가서 판매하고 자신이 작은 가게라도 내서 직접 판매하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제부터는 양계업에서 보는 손해를 소유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메꾸는 식의 양계산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경영 합리화를 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양계의 대열에서 뒤떨어질지 모릅니다. 이번 해외여행에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참으로 부지런 하다는 것 외에 모든 일을 내 일생으로 끝내지 않고 후손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평지에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경사진 곳이 대체로 농작지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때 경사가 심한 땅은 빨리 농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는 동안 갈아두고 평지는 나무를 심어놓아 급하면 빼고 바로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평소 어려움이 더 할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누구보다 실감있게 실천하고 남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싫어한다는 신흥중사장은 종업원을 가족같이 대하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부인 김영숙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